

## 공산당의 <무신론>은 민족문화를 훼손시키는 독약 (런재--2)

### 2. 중공의 '무신론'과 전통문화는 상극이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세상에 나타나자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다음과 같이 선포하였다. 《여태껏 구세주가 없었다. 신선과 황제도 기대하지 마라. 인류의 행복을 창조하려면 모두 자신에 의지해야 한다.》 간단히 말하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문화속에 몇천년동안 내려온 신에 대한 사람들의 신앙을 철저히 파괴하고 신을 포기하게 하였고 공산유령이 주인이 되어 폭력혁명으로 《낡은 세계를 철저히 파괴해 버렸던 것이다.》 신앙과 전통 윤리도덕을 포기한 사람들은 공산유령의 선동과 지휘하에 인성(人性)중 사악한 면을 방종하여 제멋대로 하게 되었다.

전통문화는 생명의 귀속(歸屬)에 관심을 가지며 천지신명을 존경하고 그에 따랐고 《피안

(彼岸)》, 《래생(來生)》 혹은 생명의 근본 해탈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다. 그러나 공산주의 사악한 영체(靈)는 사람들로 하여금 눈앞의 현세의 것만 믿게 하고 인과보응을 부정하며 금생에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대가와 수단 도 가리지 말아야 한다고 선전하였다.

선악의 전도(顛倒)는 공산유령과 몇천년래 하늘을 공경하고 신을 모시며 덕을 중히 여기고 선을 행하는 중국 전통문화와 물과 불처럼 융합될 수 없도록 이미 정해 놓았으며, 중국 공산당은 끊임없이 폭력과 세뇌의 방식으로 중국의 전통 문화를 철저히 말살해 버리려 하였고 전반적으로 부정하고 또 봉쇄하고, 격리시키고, 뜯어고치고, 왜곡하면서 중국의 전통 문화를 바꾸려 하였다. 이 수단은 권력을 장악하고 통제하려는 목적으로서 죽을 때까지 《붓》을 틀어쥐려 고한 것이 바로 이점을 증명해준다.

### 천국악단이 말레이시아에서 공연

2007 년 5 월 19 일, 20 일, 대만파룬궁학원들로 구성된 천국악단은 말레이시아 수도 팔라룸푸르에서 정채로운 공연을 펼쳐 수많은 민중과 유람객들의 절찬을 받았다. 《파룬따파는 좋다(法輪大法好)》, 《법이 우주를 바로잡다(法正乾坤)》, 《법의 북과 나팔소리는 십방세계를 진감하다(法鼓法号震十方)》 등 악곡은 관중들의 환희의 눈물을 자아냈다.



### 한국에서 2 천 2 백만의 민중들이 중공에서 탈출함을 성원

2007 년 5 월 27 일 ,한국 울산시에서 파룬궁수련생들이 집회를 열고 시위행진하면서 2 천 2 백만 민중들이 중공에서 퇴출함을 성원했다. 울산시 의회의장 김성만과 원 울산시 중구구의원 안석원은 친히 시위행진에 참가했다. 안석원은 기자들의 인터뷰에 응하여 《중공은 그야말로 용서할수 없는 정권이다.》 고 표명하였다.



## 빨간 눈 돌사자의 이야기

아주 오랜 옛날 어느 한 마을 사람들의 도덕이 아주 퇴폐하여 신(神)은 이 마을을 훼멸시킬 것을 결정했다.

자비로운 보살은 거지로 가장하고 마을에 와서 구도할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았다.

온 마을엔 단지 한 할머니가 여전히 신을 믿으며 매일 향불을 피워놓고 부처를 공경하면서 선을 행하고 덕을 쌓았다. 그리하여 보살은 자신의 원래의 면모를 드러내 보이고 나서 할머니에게 《동구밖에 있는 돌사자 눈이 빨갛게 될 때 큰 홍수가 저서 온 마을을 삼켜버릴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할머니는 서둘러 이 소식을 마을사람들에게 알린 후 매일 동구밖에 가서 돌사자의 눈을 관찰했다. 모든 사람들은 거이 다 할머니 말을 믿지 않으면서 그를 비웃기까지 했다.

어느날 저녁 한무리 망나니들이 할머니를 놀리기 위해 못된짓으로 돌사자의 눈에다 붉은색을 칠했다. 이튿날 할머니는 돌사자의 눈이 빨갛게 된 것을 발견하고 여러분들이 재빨리 마을을 떠나라고 재촉했다. 많은 사람들은 한바탕 웃으면서 아랑곳하지 않았고 몇몇 사람들만이 할머니를 따라 산으로 피했다. 순식간 번개가 치고 우뢰가 울더니 소나기가 억수로 퍼부었다.

할머니와 그들은 산위에 올라가 되돌아보니 온 마을은 벌써 아득히 넓은 물바다 속에 잠겨 버렸다.

### 번개가 죄인을 치다

누산에 기름 파는사람이 있었는데, 어머님에게 정성스럽게 효도하였으나 나중에 번개에 맞아 죽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죄가 없다고 하며 매일 구천사자(九天使者)의 사당 앞에서 대성통곡하며 아들의 죽은 원인을 알고 싶어 하였다. 어느 하루 저녁, 꿈속에서 붉은 옷 입은 사람이 그에게 알려 주기를 《너의 아들은 늘 생선기름을 콩기름에다 섞어서 팔아 돈을 많이 벌려고 하였다. 그리고 사당에 승려들의 먹는 밥과 제사에 쓰는 기름도 다 이 기름을 사용하였는데 비린 냄새가 풍겨 신령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니 너의 아들이 죽은 것은 마땅한 일이다.》고 하였다. 그의 어머니는 이 일을 안 후에 다시는 사당에 가 통곡하지 않았다.

## 나는 끝내 인생의 목표를 찾았다

나는 대만의 한 연구생이다. 지난날 나는 비관적이어서 겉으로는 웃어보이지만 속마음은 늘 고통스러웠다. 《나의 인생목표는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어찌하여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하고 자문할 때마다 나는 공허감에 쌓여 안절부절 못했다. 마음의 평온과 쾌락을 얻기 위해 나는 여러가지 많은 책속에서 생명의 진리를 찾으려고 무척 애썼지만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사는 것이 애달프기만 했다.

대학교 3학년 후학기 량교수님이 수업시간에 중국대륙의 파룬궁수련자들이 모진 박해속에서 생명의 위험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신앙을 견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나는 크나큰 충격을 받았다.

파룬궁을 련마하는 나의 남자친구의 권고로 《전법륜》 책을 읽게 되었다. 20년동안 곤혹속에서 헤매던 나는 이 책에서, 오직 모든 욕망과 집착심을 버리고 《진선인》 우주특성에 자신을 동화시켜 반본귀진 하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목표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이때로부터 나는 법륜대법을 수련하기 시작했다. 지금 나의 비관적인 개성은 점차 소실되고 마음은 온정되었다. 10년동안 나를 괴롭혔던 생리동통도 가뭇없이 사라졌으며 쇠약했던 몸은 건강해졌고 정신도 왕성해졌다.

## 기사 회 생 한 할머니

2007년 3월 25일 밤, 광동성 무명시교에 사는 79세 리서영 할머니는 갑자기 중풍에 걸려 정신이 흐리멍텅해 졌고 묻는 말도 대꾸하지 않으며 더운 물을 권해도 뿌리쳤다. 이윽고 그는 두눈을 위로 힘뜨고 전신경련을 일으키더니 입에 흰 거품을 물었다. 집식구들은 그를 눕혀놓고 약을 먹이려고 했지만 이(牙关)가 굳어져 입에 넣을 수가 없었다. 할머니를 살릴 가망이 전혀 없다고 느낀 집식구들은 그에게 상시옷을 입혀놓고 후사준비를 했다.

파룬궁을 수련하는 그의 아들은 그의 옆에다가 앉아서 그에게 끊임없이 말했다. 《파룬따파는 좋다! 찼싼런은 좋다! 고 꼭 기억하시고 파룬따파의 위력을 견증(见证)하십시오.》 라고 하였다. 1분도 안되어 할머니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눈도 움직이면서 깨어났다. 이따라 숨도 힘있게 내쉬었다. 몇분뒤에 마음대로 걸을 수가 있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을사람들은 모두 파룬따파가 과연 신기하다고 말했다.

